

본 콘텐츠는 홈페이지 유료 상품의 일부입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끝났다. 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온 장상태의 표현을 빌자면, 열리면서 끝났다는 것이다. 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사복은 춘하와 추동 2종으로 구분하되 공히 상의에 한한다. 춘하복은 추후 결정기로 하고 우선 추동복만을 제정한다. 추동복은 본사 제조의 검정 곤색 순모 복지를 기지로 하여 사파리를 신사복에 가깝게 변형 개조한 특이한 복식을 취하되 회사 심벌마크와 회사명을 좌측 포켓 위에 황색 자수로 부착한다. 착용 대상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한 전 사원이며 일제 맞춤에 한하여 경비의 반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이후부터는 각자가 전담한다. 추동복은 빠른 시일 내에 회사가 지정하는 양복점에서 지정된 일자에 출장 나와 재도록 하여 창업기념일의 일제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 피차간에 긴밀히 협조한다…….

“사원들을 대표해서 준비위원들이 한 역할은 뭐지?”

“그렇게 추궁조로 나올 일만은 아냐. 아마 명종이 자네가 참석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야.”

“내가 참석하는 걸 가정하는 경우하고 자네가 실제로 참석한 경우를 같은 차원에다 두고 결과를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야. 준비위원들을 통해서 사원들 의견을 알아본 다음 그걸 취합해서 원칙을 정한다는 약속이었어. 그런데 건의할 틈도 안 주고 비상을 걸듯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전격 통과시키다니, 말이 다르잖아!”

[중략 부분의 줄거리] 회사에서는 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사원들의 제복을 맞추지만 민도식과 우기환은 제복 맞추는 것을 거부한다. 이에 사장은 두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다.

“아주 좋은 말을 했어. 하지만 그건 일이 실천에 옮겨지기 전에 했어야 할 얘기야. ㉠ 대다수 사원들 지지를 얻어서 실천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사정이 달라. 그리고 기업 발전에 단결력이 중요하냐 창의력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야. 또 제복을 입었다고 어제는 있던 창의력이 오늘 싹 죽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어. 민 군, ㉡ 자네는 일찍이 제복 제도를 도입한 K직물이 창의력 없이 그저 눈감땀감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냐?”

“K직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 잠자코 있던 우기환이 불쑥 말했다.

“호오, 그래? 어떻게 다르지?”

“㉢ 자기 개성에 맞는 ㉣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K직물의 기업 정신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때 옆방이 다소 소란해졌다. 사장실 도어 저쪽에서 여비서가 누군가하고 들어가겠다느니 안 된다느니 하면서 실랑이하는 눈치였다. 그 소리를 듣더니 사장의 낮빛이 싹 달라졌다.

“자네들이 이러지 않아도 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 군이 K직물을 동경하는 그 심정은 나도 알아. 허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잖나. 그동안을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수 없지. ㉤ 이런 일엔 누군가 한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희생이 되죠. 피고용자한테도 권리는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 맘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제 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기환이가 분연히 소파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도어를 향해 갔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사장실을 나서는 우기환이와 엇갈려 웬 사내가 짹짹 뛰어들었다. 다방에서 두 번 본 적이 있는 생산부의 잡역부 권 씨였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 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 두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 “어서 오게, 권 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에 사장의 꺾꺾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받데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구 아침 일찍 출근했다구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기념일의 아침은 시

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①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옴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1.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해 볼 때, 작품 제목 ‘날개 또는 수갑’에 대한 작가의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옷은 그것을 입었을 때 사람을 돋보이게 해 주어야 하는데, 제복은 오히려 사생활을 구속할 뿐이라는 민도식의 비판을 압축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②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제복은 애정과 존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저 평범한 의복의 일종일 뿐이라고 보는 민도식 아내의 생각에 주목한 것입니다.
- ③ 회사원 입장에서는 제복을 입는 것이 불편한 구속일 수 있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복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 ④ 제복을 자신의 삶을 옥죄는 도구로 여기는 민도식의

생각과, 제복을 통해 신분을 외부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아내의 인식 차이를 대조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⑤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이, 제복을 입게 됨으로써 한 방향으로 고정될 것을 우려하는 민도식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파악한 작중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방침에 사원들은 무기력하게 이끌려가고 있다.
- ②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
- ③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사원들이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 ④ 한 섬유 회사의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갈등이 사건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 ⑤ 사원들 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회사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앞부분의 줄거리] 눈 오는 겨울밤, 사람들이 간이역에서 기차를 기다린다. 부친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농민, 감옥에서 최근 출소한 사내, 시위 문제로 제적된 대학생, 빛 받으러 산골 마을을 다녀가는 서울 여자, 행상하는 아낙네들, 술집 아가씨, 갈 곳 없는 미친 여인 등이 그들이다.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귀를 모은다. 분명히 기적 소리다.

야아, 오는구나.
저마다 눈빛을 빛내며 그들은 서둘러 짐 꾸러미를 찾아 들고 플랫폼을 향해 종종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 여자가 유리문에 미처 다다르기도 전에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 특급 열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다시 닫더니 플랫폼으로 바빠 사라진다.

참, 그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대합실 안의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진다. 이번에도 특급이야? 똥똥이는 짜증스레 내뱉었고 아낙네들은 욕지거리를 섞어가며 툭툭대었으며, 노인은 더 심하게 기침을 콜록거렸고, 농부는 이번엔 늙은이의 가슴을 쓸어 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롯가로 되돌

아갔고 맨 뒤로 몇 발짝 따라 나왔던 미친 여자는 쭈뼛 쭈뼛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에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그사이, 열차는 쿵광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라 같은 형상들이 꿈속에서 보듯 현란한 흔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사위는 아까처럼 다시금 고요해졌고, 창밖으로 철책의 어둠이 짹째 제자리를 찾아 들어온다.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에서 늙은 역장의 손전등 불빛이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망막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소리 없이 스러져 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움 같은 거였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차창들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마지막 가닿는 곳은 어디쯤일까? 그런 뜻 없는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이 가라앉은 시선을 창밖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한 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재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엔 싸룩싸룩 송이눈이 쌓여 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애가 톱밥 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되비추어 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땡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러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촌심어도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툭툭 튀어 올랐다.

“㉠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뭣이간디…….”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종략)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두 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

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역장은 그 사람이 재 너머 오 씨 큰아 들임을 알았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웬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 버렸다.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 서 있던 늙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 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집이 어디며, 또 어디서 왔는지 역장은 전혀 모른다. 다만 이따금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었다.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에겐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있어서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듯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리라.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올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땀국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귀퉁이엔 보일락 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거 참 난처한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 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3. 이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체험한 사실을 상세하게 그려 내고 있다.
- ③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 ④ 시대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 자신이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다.

4. 이 작품은 <보기>에 제시된 시를 읽고 받은 감동을 기초로 하여 쓴 작품이라고 한다. <보기>와 비교할 때, 이 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뭉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 ① <보기>보다 서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 ② <보기>에 비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 ③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보기>보다 더 음산한 분위기가 강조되어 나타나 있다.
- ⑤ <보기>에 비해 함축적인 언어 구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물론 가겠노라고, 어제는 정말 짬이 나지 않았노라고 자신 있게 입막음을 하지도 못한 채 나는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다. 처음 그 애가 “혹시 은자라고, 철길 옆에 살던…….” 하면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무작정 한 반가움은 웬일인지 그 이후 알 수 없는 망설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은자는 내 추억의 가운데에 서 있는 ㉠ 표지판이었다. 은자를 기동으로 하여 이십오 년 전의 한 해를 소설로 묶은 뒤로는 더욱 그러하였다. 기록한 것만을 추억하겠다고 작정한 바도 없지만 나의 기억은 언제나 소설 속 공간에서만 맴을 돌았다. 일 년에 한 번,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갈 때마다 표지판이 아니면 언뜻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는 고향의 모습이 내게는 낯설기만 하였다.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여관이나 상가 사이에 홀로 박혀 있는 친정집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다 잃고 있었다. 옛집을 부수고 새로이 양옥으로 개축한 친정집 역시 여관을 지으려는 사람이 진작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집 앞을 흐르던 하천이 복개되면서 동네는 급격히 시가지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철길이 뜰기면서는 완벽하게 옛 모습이 스러져 버렸다.

작은 음악회를 열곤 하던 버드나무도 베어진 지 오래였고 찌빵 가게가 있던 자리로는 차들이 썩썩 달려가곤 했다. 아무래도 주택가 자리는 아니었다. 예전에는 비록 정다운 이웃으로 둘러싸인 채 오순도순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었다. 은성장 여관, 미림 여관, 거부장 호텔 등이 이웃이 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한창 크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 형제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제 아버지에게 이사를 하자고 졸랐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좀체 집을 팔 생각을 굳히지 못하였다. 집을 팔라는 성화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는 오히려 집수리에 돈을 들이곤 하였다. 그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큰오빠였다.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썸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때 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 씨의 역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낡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붙박여 있었다. 서른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 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 돋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일요일은 언제나 그랬다. 약속을

못 지킨 원고가 있더라도 일요일까지 전화를 걸어 독촉해 올 편집자는 없었다. 전화벨이 울린다면 그것은 분명 은자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오후가 되어서 이윽고 전화벨이 울렸다. 그러나 수화기에선 쉼 목소리 대신에 귀에 익은 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향에서 들려오는 살붙이의 음성은 모든 불길한 예감을 져히고 우선 반가웠다. 여동생이 전하는 소식은 역시 큰오빠에 관한 우울한 삽화들뿐이었다. 마침내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과, 한 달 남은 아버지 추도 예배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올리기로 했다는 이야기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어제였는데 큰오빠는 종일토록 홀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 집을 팔기 원했으나 지금은 큰오빠의 마음이 정처 없을 때라서 식구들 모두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동생은 말하였다.

집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훨씬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큰오빠에게 있으므로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어제 종일토록 홀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 나도, 그리고 동생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인칭 시점으로 ‘나’는 서술자이면서 동시에 등장 인물이기도 하다.
- ② 작가 특유의 아름답고 간결한 문체로 독자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다.
- ③ 소설 속에 삽입된 노래는 주제 의식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1970년대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무너져 가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⑤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주변 인물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다.

6.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나는 과거의 기억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친구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다.
- ② 등장 인물이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③ 작가 양귀자가 직접 작품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오빠는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 ⑤ 우리 청소년들이 읽으면 가장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치켜떠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아직 마흔 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티를 내고 있었다.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서너 해 사이 나이를 곱절로 먹은 듯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에 물코를 풀곤 말을 이었다.

“길남이 너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창창한 세월이 남아있잖나. 그러이 지금부터라도 악심 묵고 살아야 하는 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니 장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평양택 정만이 학생 봐라. 아버지 굶이 저거 엄마가 군복 장수 해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위채 학생 들 가르쳐서 번 돈을 가용에 보태고, 열두 시 넘어까지 호롱불 켜 놓고 자기 공부를 안 하나. 그러이 반장 하고 늘 일등이라 안 카나. 가는 반드시 판검사나 대학교 교수가 될 끼다. 또 한 가지, 니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 넘고 이기는 길은,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키 쌓는 길이다. 재주 굶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 키라도 해야제.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굶어도 묵고 살 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나. 남자는 그렇게 밥 손가락 놓자마자 밥상을 걸터 넘고 나서서 부랄이 요령 소리 나도록 뒤편겨야 제 식구를 먹이 살린다. 그러이 내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서마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 그래서 내가 궁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이 돈으로 멀 우째 하라고예?”

나는 어리둥절하여 손에 쥔 돈을 내려 보았다.

“길남아, 그 팔십 환으로 신문을 받아서 팔아 봐라.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벌는 기 문제가 아이라, 니 힘으로 돈벌이해 보모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끼다. 이 세상으 쓴맛을 알라 카모 그런 경험이 좋은 약이 될 테이께. ㉡ 는 속담도 있느니라…….”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응이 박힌 말이 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그 말씀은, 입학기가 지난 뒤 나를 대구로 불러올렸을 때 이미 예정해 둔 계산임 이 분명했다. 시골서 내놓은 망아지로 지내며 초등학교나마 근근이 마치고 올라왔으니 한 해 동안 도시 물질 이나 익히게 하며, 제가 벌어 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 주자.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해 두었고, 내가 대구시로 나온 지 열흘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 의 용단을 내렸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돈 팔십 환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덩 그 돈으로 차비 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노미*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니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의 아귀찬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굶기고,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다.

(중략)

“누부야는 좋겠다. 어무이하고 길중이 사이에서 누버자이. 나는 진영에서 늦게 왔다고 켈로 추분 바람벽 앞에다 재우이께 손해만 본다.”

내가 구시렁거렸다.

“니는 이 집안 장자 아인가. 니가 참아야제.”

가장 안쪽에 누운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그렇지예.”

나는 말꼬리를 감추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은 내게 시키고 그 이유는 이 집안 떠말을 장자란 데 있었다. 나는 장가를 간 뒤에까지 때때로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여자로부터 나를 낳아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매질만 해도 어머니는 내게만 유독 극악을 떨었고, 어렵고 힘든 일은 여투어* 두었다 내게 맡겼다. 나 혼자 진영에 떨어뜨려 둔 것도 당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았고, 대구로 올라왔으나 학교에도 보내 주지 않고 신문팔이를 시킨 일도 따지고 보면 서럽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주인집은 아래채와 바깥채에 세를 주고 있는데, 아래채에 살던 ‘나’의 가족은 방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갑자기 방을 비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는 바깥채로 들어오기로 한 정 기사에게 세 들어오는 것을 봄 때까지만 미루고 ‘나’의 가족이 바깥채에 살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어머니는 정 기사에게 다달이 돈을 주기로 하고 봄 때까지 바깥채에서 살기로 한다.

“길남아, 니 아버지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런 설움 당하겠나. 여자 혼자 바느질해 묵고 산다고 정 기사가 사람 깔보는 거 바라. 백 환만 깎아 달라 캐도 택도 없다 안카나. 일주일 안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땅땅 큰소리치이, 내가 그 남정네를 우에 상대하겠노. 심지 뽑기만 해도 그렇제.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이 엄동에 이사 갈 처지가 문 되어 심지 뽑기를 안 하겠다고 내가 울며 불며 말했는데, 주인집 안들(여자)은 나무 딜라 놓으라 칼 때 말은 깜빡 잊어뺐는지 들은 척도 않더라. 아니나 다를까, 반대한 내가 마 마지막 남은 쪽지를 쥐고 말았

제. 길남아, 길은 오직 하나데이. 니가 크야 한다. 질대(왕대)같이 얼렁 커서 튼튼한 사내 구실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혼자 살아온 이 에미 과부 설움을 풀 수가 있다.”

어머니 말씀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이다음에 어른이 된다고 모든 경쟁 상대로부터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 나는 신문팔이와 신문 배달을 통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눈치로 터득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만큼 이기적이며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일찍 알아 버린 셈이었다. 어머니 말처럼 장차 내가 집안 의지 기둥이 되려면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러자면 정직과 성실만으로는 어렵고 실력·체력·노력, 거기에 탐욕·교활·언변 따위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도무지 어머니의 그 멧힌 한을 풀어 드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여자로 변할 수 없다면 어서 세월이 흘러 머리 허영게 센 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 아침 어머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였다.

- 김원일, 「마당 깊은 집」

*중노미: 음식점, 여관 따위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남자.
*여투어: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어. 여기서는 ‘모아 두어’의 뜻으로 쓰임.

7. 위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서술자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꿈속에 꿈을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 ③ 서술자의 나이와 수준에 맞추어 문장의 호흡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전개와 작중 인물의 생각을 구별하지 않고 혼합하여 쓰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8. <보기>는 위 글의 앞부분의 내용으로 ‘어머니’가 ‘길남아’에게 늘 하던 말이다. 이를 참고로 ‘길남아’가 어머니의 기대대로 성장했다면 어떤 인물이 되었을지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길남아. 내 말 잘 듣거라. 나는 인자 애비 없는 이 집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기 무신 천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제? 난리를 겪으며 배를 철철 굶을 때, 니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 설움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 끼다. 오직 성공한 몸뚱이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라 카모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한다.”

- ①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선 사업가가 되었을 것이다.
- ② 외골수로 빠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았을 것이다.
- ③ 평생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위로해 드리면서 살았을 것이다.
- ④ 세파(世波)를 꺾어헤치고 자수성가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 ⑤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하는 반전 운동가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12세 소녀 진희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외할머니,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삼촌은 그의 친구 허석과 함께 집에 오게 되었다.

“㉠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구나.”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의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 버린다. 조금 후에야 소의 밥통에서 도로 꼬집어내져 씹히는 풀처럼 그의 말을 도로 새김질해보자 그제야 그의 말뜻이 머리에 들어온다. 헤어지게 됐구나, 라고.

“㉡ 언제 가는데요?” / “응. 내일.”

허석의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짚게 찌른다. 그러면, 허석이 떠난다는 말인가?

나에게 있어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나가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A]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인상 좋았지요?”

내 어깨 위에 얹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어 허석의 눈을 마주 본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허석이 부드러워 보이는 입술을 움직여 말한다.

“응. 특히 진희 년 잊지 못할 거야.”

나는 그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 버리거나 않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그때 마침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히 어깨를 툄다든가 하면서 은밀한 짓을 들킨 사람의 무안함을 무마해 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짓이다. 그렇다고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포옹을 하고 있을 자신은 없고…… 어떻게 시치미를 떼야 하나, 그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와락 안아 버리지는 않았다.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팔을 쳐들더니 가볍게 등을 몇 번 토닥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고는 “내일 아침에 보자.” 하면서 다시 삼촌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아니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는다. 역시 변소 쪽에 볼일이 있는 모양이다. 신발 신는 소리를 들었는지 삼촌이 방 안에서 “석, 후라시 갖고 가지그래.” 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루에서 일어나는 일이 방 안에서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모는 또 편지를 끼적이느라 방바닥에 엎드려 있다. 내가 들어가니 눈길을 그대로 편지지에 박은 채 “㉢ 저 오빠 며칠 안 있다 가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그 말은 나와 허석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방 안에서 들렸다는 사실과 더욱이 그것이 누가 듣기에도 아무런 비밀스러운 점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내가 공개 방송 무대에서 공연 중이란 것을 나만

몰랐던 셈이다.

삼촌이 차부에 나가겠다고 옷까지 갈아입는 것을 허석은 한사코 사양한다. 토요일이라 버스 시간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며(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다.) 그가 버스에 올라탄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겠다는 삼촌의 말에 허석은 정 안 되면 도청 소재지로 나가서 차를 갈아타겠다고 우긴다. 삼촌은 할 수 없다는 뜻이 그림 그렇게 하라고 말해 놓고 나를 보더니 생각났다는 뜻이 이렇게 덧붙인다.

“참, 진희 학교가 차부 뒤쪽이니까 아침 먹고 같이 나가면 되겠군.”

나는 허석을 배웅할 수 있다는 데에 두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허석도 나의 배웅은 받겠다는 뜻으로 나를 향해 웃어 보인다. 나는 그 웃음을 이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허전하다.

차부에서 조금 지체할 시간을 갖기 위해 다른 날보다 집에서 일찍 나왔다. 가방을 어깨에 걸쳐 맨 허석을 보자 불현듯 서울이든 어디든 그를 따라서 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그가 오던 날도 그랬다.

(중략)

우리 집 골목이 보인다. 걸음이 느려진다. 허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이 골목을 들어서던 지난 사흘의 행복한 기억이 더욱 나를 불행하게 한다. 이모가 사 온 ‘자유 일기’에는 페이지마다 맨 밑에 ‘오늘의 명언’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다. “불행한 날에 행복한 지난날을 떠올리는 것은 이중의 고통이다.” 그 말이 다가와 가슴을 찌른다. 힘없이 대문을 열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린다. 오늘 이 우주에서 가장 슬픈 것은 바로 나일 것이라고.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허석이 마루에 앉아 있다.

처음에는 놀랐고 그다음에는 ㉠ 내가 드디어 헛것을 보는가 싶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 내가 느낀 감정은 놀랍게도 실망이었다.

그가 다시 온 것이 반갑지 않을 뿐 아니라 실망스럽기까지 하다는 걸 깨닫고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럴리가 없다. 불과 몇 초 전, 저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나는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아무리 보아도 나는 허석과의 예상치 않은 재회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까의 슬픔, 바로 거기에서 이별의 이미지가 완결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 팔쥐 역을 맡아 지금껏 열심히 연습했는데 갑자기 콩쥐로 배역이 바뀐 것처럼 나는 맥이 빠진다. 그렇게 나 몰두해 있던 팔쥐의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서

콩쥐의 감정에마저 무덤덤해진다. 이별의 슬픔이 무의미해지자 사랑마저 시들해진다는 걸 나는 처음 깨닫는다.

새로 맡은 배역에 미처 적응이 되지 않아 내 표정은 굳어 있다. 다행히 ‘보여지는 나’가 뛰쳐나와 ‘바라보는 나’의 실망을 감추는 순발력을 발휘해 준다.

[B] “오전에 출발하는 버스가 고장이래. 오후에 두 번 더 있다는데…….”

허석은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본다. / “출발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

- 은희경, 「새의 선물」

9. 윗글의 서술상 특징과 효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철저히 객관화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주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직접 서술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건과 관련된 주인공의 심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 ④ 서술자가 직접 상대 인물을 비판하게 함으로써, 상대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⑤ 비판받아야 할 인물을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에 세움으로써, 왜곡된 현실 구조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0. 위 글에서 ㉠이 갖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의 분위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 ② 여러 장면을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
- ③ 주인공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
- ④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길함을 암시한다.
- ⑤ 사건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정답 및 해설

1) <답> ①

이 작품은 한 회사를 사건 전개의 배경으로 설정하여, 그 회사에서 제정한 제복(유니폼→옷)에 대하여 사원들이 불만을 갖지만 결국은 회사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통해 1970년대의 사회적 특징이었던 획일주의적인 군사 문화의 잔재를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이러한 작품의 흐름과, 이 글 속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날개’와 ‘수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그런 종류의 날개를 달고는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수 없음’이라는 내용에서는 ‘자유’의 의미를, ‘옷이 날개’라는 속담에서는 속담의 의미 그대로 옷이 좋으면 사람이 한층 돋보인다는 뜻을 추출할 수 있다. 반면에 ‘수갑(죄인의 손목에 채우는 형구)’은 그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접근하면 ‘구속’을 뜻하므로 ‘날개’와는 대조적인 어휘가 되는 것이다. 결국 ‘옷(제복)’에 대한 사원들의 불만을 주요 화소로 한 사건 전개의 양상과 관련하여 두 어휘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면, 옷은 입을 사람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제복은 그와 달리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입을 사람을 구속하게 된다는 점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제목은 그러한 작품의 주제 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답> ⑤

종료 전의 대화는 사원들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음(③)을 말해 주는 한편, 해당 회사가 사원들의 의사 소통이 안 될 정도의 대기 업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3) <답> ①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감각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4) <답> ②

<보기>보다 구체적으로 역 대합실 안팎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5) <답> ④

6) <답> ①

7) <답> ⑤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길남이가 어떤 잘못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가출했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길남이가 꾸는 꿈을 통해 길남이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강한 압박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집안에서의 길남이의 역할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온 길남이는 가출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집안일에 몰두하게 된다. 이렇듯 제시된 부분에서는 ‘가출 후 귀가’라는 사건과 이에 관한 길남이의 심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한 소설이라고 볼 수 없다.

① 후반부 ‘그 뒤로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며 변죽이 죽 끓듯 하지만’과 같은 표현을 보면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꿈속에 ‘하우’가 꾸는 꿈이 스며든 신기한 꿈을 꾸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의 강박 관념이 꿈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단어의 수준이 평이하고, 문장이 전체적으로 짧은 것은 소년의 눈에 비친 현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④ 생각한 내용을 ‘(작은따옴표)’와 같은 인용 부호 없이 직접 노출하고 있는 부분이 군데 군데 많이 있다.

8) <답> ④ [관점에 따른 내용의 추리] <보기>에서 ‘어머니’가 어떤 처지에 있으며, ‘길남이’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어머니’는 ‘길남이’가 아버지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장남 노릇을 하며 살기를 바랐다. 장남은 어머니의 자식이지만 또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라 카모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한다.’는 말에서 그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길남이는 어려운 세월을 꿰뚫어 이기고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①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한 이웃까지 보살필 것이라고 유추할 수는 없다. ② 어머니는 아들에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③ 어머니는 장자로서 그가 강인한 사람이 되어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였으나, 이것이 평생 어머니 곁을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⑤ 전쟁 때문에 가난한 삶의 상황에 처해 이어지는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전쟁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지 않다.

9) <답> ③

②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주로 제시되어 있다.

10) <답> ③